

研究論文

# 국어 융합형\*\* ‘-잡다/-참다’의 단어 형성과 그 의미

이 광 호\*

I. 연구목적과 그 영역	IV. 융합형 ‘-잡다/-참다’와 단어 형성
II. 융합형 ‘-잡다/-참다’의 형성과정	V. 융합형 ‘-잡다/-참다’ 어휘의 의미
III. ‘-잡/참-’에 대한 연구 약사	VI. 결론

## I. 연구목적과 그 영역

본고는 현대국어에서 통사적 통합에 따라 몇 가지 성분이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융합(融合, blending) 과정을 거쳐 형성된 융합형 ‘-잡다/-참다’의 융합과정과 그것이 또 다시 어근 또는 어간에 통합되어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과정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언어 변화는 음운, 문법, 어휘 등 언어 체계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이 가운데서 특히 어휘의 변화는 언어변화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국어학

\*\*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1998), 12쪽에서 ‘대여섯 짐잡다 맞서다 샌님 당최 등의 예를 제시하고 이들을 융합형으로 명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 아니하다’가 ‘-잡다’로 융합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융합형으로 부른다. 융합형 ‘-잡다’와 관련하여 일부의 ‘-잡’이 낱말의 일부가 되었다는 주장은 고영진,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1997), 216~224 쪽과 김철남 『우리말 어휘소 되기』, 한국문화사(1997), 179쪽 등에서도 확인된다. 손세모들, 「‘-잡’의 의미, 전체, 함축」, 『국어학』33(1999), 214 쪽의 각주2 참조

있을 정도로 변화의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어휘변화가 실제로 자립형태소, 곧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가 변화됨으로써 그 언어의 화자들이 변화의 실체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기 중세국어에서 ‘一’을 뜻하는 ‘흔(一)’과 ‘시간’을 뜻하는 ‘쁘’가 명사구를 이루고, 이론적으로 그것에 다시 처격조사 ‘의’가 통합된 ‘\*흔쁘의’가 다시 적절한 음운현상(‘쁘’의 ‘一’탈락)에 따라 ‘흔뻑’이 되는데, 이 명사구는 결국 ‘흙뻑’을 거쳐 현대국어의 ‘함께’에 이르게 된다<sup>1)</sup> 이와 같이 어느 시기에 공시적으로 널리 쓰이던 단어가 변화되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거나 이제까지 쓰이지 않던 새로운 단어, 곧 신어(新語)가 쓰이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

또 단어의 음성변화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변화되어 기존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들도 많다. 곧, 후기 중세국어에서 ‘어리’와 ‘피(뿔)’는 그 음상(phonetic shape)은 대체로 현대국어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15세기 중엽의 ‘어리석다(愚)’와 ‘산(山)’의 의미에서 현대국어에서는 ‘어리다(幼)’와 ‘뿔(鬚)’의 뜻으로만 변화되어 남게 되었다.

공시적인 측면에서 현대국어의 융합형 ‘-잡다-잡다’가 통합된 통사적 성분 가운데 일부는 어휘화되어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제3의 뜻<sup>2)</sup>으로 통시적 변화를 겪었던 예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겉으로는 똑같은 융합형 ‘-잡다-잡다’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것이 통합되어 동사구를 형성하게 될 때, ‘점잡다’, ‘편잡다’류 동사와 ‘종잡다’, ‘먹잡다’류의 융합에 의한 부정동사구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본 논의에서는 전자만을 곧 이지양(1998:89)의 술어를 빌리자면 진전된 융합형만을 대상으로 논의한다. 사실을 좀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다음 (1), (2)로 제시하기로 한다.

(1) 융합형 ‘-잡다-잡다’의 어휘화 동사

(가) 점잡다, 갈잡다, 등등

1) 이기문 『국어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1980), 59쪽; 『국어사개설』, 태학사(1998), 145~146쪽 참조

2)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1998), 89쪽에서 ‘점잡다’는 근대국어 ‘점지않다’에서 융합된 것으로 이미 그 의미가 변화하여 새로운 단어가 되었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곧 이 ‘점잡다’는 ‘진전된 융합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지양, 앞의 책, 89쪽의 각주 18을 참고하기 바란다.

- (나) 괜잡다(간잡다), 편잡다, 개운잡다, 마땅잡다, 수월잡다(술잡다), 귀잡다(기잡다, 구잡다), 하잡다, 마뜩잡다, 등등
- (2) 융합형 부정사 ‘-잡다’의 동사구  
 예쁘잡다, 곱잡다, 춥잡다, ?욕하잡다(욕하잡아), ?성공하잡다(성공하잡아), 등등

그렇니까, (1)의 (가)와 (나)의 예들은 이미 어근 또는 어간에 융합형 ‘-잡다-잡다’가 통합되어 새로운 동사가 된 뒤 ‘점잡-, 같잡-, 괜잡-, 편잡-’ 등의 새로운 동사 어간을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하여, (2)의 ‘-잡다’는 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부정 부사형어미 ‘-지’에 ‘아니하다’의 축약형 ‘않다’가 통합되어 ‘-잡다’를 이루고, 이것이 동사 어간에 통합되어 부정의 동사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1)의 ‘-잡다’ 유형의 파생동사와 (2)의 ‘-잡다’ 유형의 부정동사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통사적 결합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넘을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 (3) ‘-잡다’류의 동사와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반말체의 종결어미 ‘-아’와의 통합양상
  - (가) ‘-잡다-잡다’ 파생어와 의문어미 ‘-아’  
 \*점잡아?(점잡잡아?), \*괜잡아?(괜잡잡아?), 같잡아?(같잡잡아?), 등등
  - (나) 부정 동사구 ‘-잡다’와 의문어미 ‘-아’  
 예쁘잡아?(예쁘잡잡아?), 곱잡아?(곱잡잡아?), 춥잡아?(춥잡잡아?)

우리는 이제 (3)(나)의 ‘예쁘잡아?(예쁘잡잡아?)’에 대하여 (3)(가)의 ‘\*점잡아?’처럼 똑같은 의미로서의 적격성(well-formedness)이 부정되고<sup>3)</sup> ‘점잡잡아?’는 그 적격성을 가짐으로써 분명한 차이를 가지는 파생동사류 (1)에 의하여 그 형성과정과 의미의 변화 등을 논의하려 한다.

3) ‘예쁘잡아?’와 ‘점잡아?’ 두 동사구가 의문문으로 성립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 어구가 가지는 수행역양에 의하여 전자와 후자는 각각 다른 의미의 의문문을 이룬다. ‘예쁘잡아?’의 수행역양을 ‘→, ↗’로 나타낼 수 있다면 ‘점잡아?’는 ‘↘’만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II. 융합형 ‘-잖다/-찮다’의 형성과정<sup>4)</sup>

어느 언어든지 형태론적 차원이나 통사론적 차원에서 기존의 두 성분이 통합관계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어휘나 문법형태소 등을 생성하게 된다. 가령 현대국어 형용사 ‘아니꼽다’와 감탄사 ‘아니나다를까’ 등은 실제로 다음 (4)(가)와 (4)(나)의 구성을 이루었으나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단일 품사의 어휘로 정착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4) (가) 아니꼽다: 부정사 ‘아니’ + 형용사 ‘곱다’

(나) 아니나다를까: 부정사 ‘아니’ + 활용어미 ‘-나’ + 형용사 어간 ‘다르-’ + 의문형어미 ‘-르까’

곧, 사전적 의미가 “① 비위에 거슬리어 게을 듯하다(속이 아니꼽다), ② 말이나 하는 것이 마음에 거슬리고 밉살맞다(거들먹거리는 꼴이 보기에 아니꼽다)” 중인 (4)(가)의 ‘아니꼽다’는 그 분석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본래 ‘곱지 않다’의 의미에서 위와 같은 사전적 뜻으로 변화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과연 그렇다는 뜻을 힘주어 말할 때 앞세우는 말”인 감탄사 (4)(나)의 ‘아니나 다를까’도 그 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본래 다른 의미의 어구에서 하나의 품사로 전성된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통사적 결합어에 대한 국어 단어의 형태, 통사론적 연구가 송원용(2002), 최형용(2002)에서 자세히 검토·논의되었거니와 기존의 통사적 성분들이 그 자체의 기능을 잃고 새로운 어휘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규칙 등이 언제나 모든 통사적 통합과정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단어의 형성은 통시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음운변화가 체계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단어 형성에 실현되는 규칙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곧, ‘아니꼽다’의 경우,

4) 국어의 전반적인 융합 과정에 대하여는 이지양, 앞의 책, 66-82 쪽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본고에서의 융합형 ‘-잖다/찮다’에 대하여는 부정 부사형어미 ‘-자’가 통합되고 그것에 ‘아니하다’가 통합된 것으로 축약에 따른 음절의 삭감을 가지소 있는 어휘 재구조화의 일부로 간주한다.

(4)(가)와 같은 분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부정 부사 ‘아니’가 후행하는 형용사와 통합하여 새로운 복합형용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4)(나)의 ‘아니나다를까’의 경우도 완전히 동일하다. 가령 ‘가고 아니오다 나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와 같은 예에서 ‘아니오다, 아니노자’ 등이 그 구성형식은 ‘아니꼽다’와 동일하나 이것들은 절대로 단일 품사의 동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국어 융합형 ‘-잖다. 찰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다음 (5)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5) (가) ‘-잖다’의 형성과정

동사 어간 ‘X-’+부정 부사형어미 ‘-지’+부정 부사 ‘아니’+동사 접미사 ‘-하-’

예: ‘같-’+‘-지’+‘아니’+‘-하다’ (같지아니하다>같지 않다\* 같잖다>같찰다)

(나) ‘-찰다’의 형성과정

접미사 ‘-하-’의 파생동사 어간 ‘X-’+부정 부사형어미 ‘-자’+부정 부사 ‘아니’+동사 접미사 ‘-하-’

예: ‘편하-’+‘-지’+‘아니’+‘-하다’ (편하지아니하다>편하지 않다>편치않다>\*편찰다>편찰다)

(5)(가)의 음운현상에서 좀더 구체적인 규칙 적용의 순서 등등에 대하여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략적인 해석에서 예로 제시된 ‘같지아니하다’의 통사적 통합 양상이 ‘아니하다 가 ‘않다’로 융합 축약 되고 이것이 ‘-지’와 다시 융합될 때, 부정 부사 ‘-지’의 모음 ‘ㅣ’가 후행의 ‘야’와 결합하여 ‘\*같찰다’가 되고 이것이 다시 ‘같잖다’를 이루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하다. ‘같지아니하다’의 통합관계에서 동사 어간 ‘같(同)’에 부정의 어미 ‘-지’가 통합되고 다시 ‘아니하다’가 연결됨으로써 그 동사구 자체는 1 차적으로 당연히 ‘不同’의 의미를 나타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동사구의 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변이는 대체로 부정 부사형어미 ‘-지’가 ‘아니하’의 융합형 ‘않’과 다시 융합될 때 ‘잖’을 이루게 되고 이것은 처음 ‘지[tsj]’의 구개음화 ‘지[ʧ]’으로의 변화에 따라 ‘잖’으로 실현된 것이다. 실제로 국어의 동사 어간 ‘X-’에 부정 부

사형어미 ‘-지’가 통합되고 그것에 다시 ‘-않다’가 통합될 때, 비록 수의적이기는 하지만 ‘-지’의 ‘ㅣ’는 후행 모음 ‘ㅏ’와 축약되어 ‘-\*잖다’가 형성되고 이것을 다시 ‘-잖다’를 실현시킨다. 실제로 “먹잖다, 자잖다, 보잖다, 춥잖다, 덥잖다” 등등에서 ‘-지 않다’는 ‘-잖다’로 항상 변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지’의 모음 ‘ㅣ’는 ‘않’의 모음 ‘ㅏ’와의 축약에서 “\*잖다>잖다”를 이루게 되는데 의 탈락은 단순한 부정 동사 ‘못하다’의 통합 ‘-지 못하다’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 특유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보지 못하다, 가지 못하다”의 경우에는 ‘-지’의 ‘ㅣ’가 탈락되어 “\*봣 못하다, \*갓 못하다”는 절대로 적격형으로 실현될 수 없는 예들인 것이다.

(5)(나)의 ‘-잖다’ 형성과정은 (5)(가)의 동사 어간 ‘갈’과 다르게 ‘개운하, 마땅하’ 등과 같이 어근 또는 어간에 융합형 ‘-하’가 통합되어 파생동사를 이루고, 그 어간 ‘X하’에 (5)(나)와 같은 ‘-자+아나 하다’가 통합된 뒤 그 동사 어간 ‘X하’의 ‘하’에서 ‘ㅏ’가 탈락되고 나머지 ‘ㅎ’은 부정 부사형어미 ‘지’와 연결되어 유기음 ‘치’로 변한 다음, 이것이 ‘않다’에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갈지 않다’의 동사 어간 ‘갈’에 대하여 ‘개운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의 경우는 그 동사 어간이 ‘개운하, 마땅하’로 ‘갈’과 다르고, 이 파생 어간 ‘개운하, 마땅하’의 마지막 음절 ‘하’에서 ‘ㅏ’가 다시 탈락하므로써 ‘-잖다’의 ‘ㅈ’이 유기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융합형 ‘-잖다’와 ‘-잖다’는 동사 어간이 동사 접미사 ‘-하’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생긴 이형태일 뿐 그 과정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 III. ‘-잖/잖-’에 대한 연구 요약

‘-잖아?’ 형식의 부정 의문문에 대한 장석진(1973:119-121)의 논의에서부터 시작된 ‘-잖’에 대한 관심은 장석진(1974)에서의 ‘-잖아?’ 의문문의 제약 등을 논의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부정의문문 ‘-잖아?’에 대한 연구는 김독식(1980, 1981), 장석진(1984), 장경기(1986), 이필영(1995), 이영만(2001) 등에서 더

욱 세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잖’을 위요한 이와 같은 의문문의 연구는 오히려 ‘-잖’ 그 자체에 대한 규명을 도외시한 것이었다. 정원수(1988), 이태영(1988), 이승재(1992), 김철남(1997), 고영진(1997), 이지양(1998), 손세모돌(1999) 등에서 융합형 ‘-잖’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특히 이지양(1998) 및 손세모돌(1999)에서 융합형 ‘-잖’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정의문문 ‘-잖아?’에 대한 연구는 본 논의와 직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통합형 ‘-잖’의 형성에 있어 동사(형용사 포함) 어간에 부정 부사형 어미 ‘-자’가 통합되고, 이것에 다시 ‘않다(<아니하다>에 통합되어 융합형 ‘-잖(-잖)’이 형성된다는 것은 공통된 내용이다. 대체로 의문문 ‘-잖아?/-잖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평서문에서도 융합형 ‘-잖잖’이 확인되는데, 그 예로 연결어미 ‘-고 -니 -아서’ 등이 연결된 ‘-잖고, -잖니, -잖아서’와 평서법 종결어미 ‘-다가 연결된 ‘-잖다’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어말어미 앞에 실현되는 ‘-잖잖’이 문법 범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더구나 대체로 어휘화되었다고 생각되는 (8)의 예들 이것들은 대체로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확인되는 ‘-잖잖’까지를 생각한다면 통사적 성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 아니하다(않다)’의 융합형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잖잖’은 문법범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 논의에서는 ‘-잖잖’이 실현되는 의문문, 평서문 등에서 그 환경이 어말어미 앞이라는 사실이 중시되어 이 융합형 ‘-잖잖’이 선어말어미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손세모돌(1999:216~237)에서 이런 주장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고 일부 유보적인 태도를 사지고 있으나 이지양(1998:187~188)에서도 이를 선어말어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선어말어미(예, 존칭의 ‘-사’, 과거 시제의 ‘-았었’ 등)들과 똑같이 이 융합형 ‘-잖잖’도 선어말어미라는 문법범주로 분류되는 데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이지양(1998:188)에서도 명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융합형 ‘-잖잖’에 통합하는 활용어미가 ‘-니, -야’로 극히 제한되어 있고 ‘-잖’은 언제나 ‘-지’와 ‘아니하다’로 복원되어 쓰일 수도 있어, 이를 단순히 선어말어미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덧붙여 ‘-잡잡’이 선어말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이지양 (1998:89)의 용어로 ‘진전된 융합형’, 곧 어휘화된 일부 단어에서 확인되는 ‘-잡잡-’의 문법적 범주가 문제 된다.

실제로 융합형 ‘-잡잡’ 속에 들어 왔는 내적인 성분이 통사론, 형태론, 의미론적으로 각각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기원적으로 부정 부사형어미 ‘-지’, 부정의 조동사 ‘않다(<아니하다)’의 융합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거의 완전히 어휘화했다고 할 수 있는 ‘괜찮다, 솔찮다(<수월찮다)’ 등에서까지도 미지의 어근 ‘괜, 솔(<수월)’에 관계 없이 융합형 ‘-잡’을 어간의 ‘ㅎ, 부정 부사형어미 ‘-지’, 부정 조동사 ‘않다(아니하다)’로 분석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일부의 통사적 사실을 근거로 ‘-잡’의 문법 범주를 선어말어미로 규정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이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 예 (6)을 보도록 하자

- (6) (가) 그 여자 참 예쁘잖아?  
 (가) 그 여자 참 예쁘지 않아?  
 (나) 선생님께서 오늘 미국으로 떠나셨다.  
 (다) 점잖다, 편찮다, 솔찮다(<수월찮다), 괜찮다, 등등.

의문문 (6)(가)에서 확인 기능(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융합형 ‘-잡’은 그런 대로 선어말어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융합형’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6)(가)와 모든 것이 똑같은 (6)(가)에서 ‘-지 않’은 어떤 문법 범주가 될 것인가?

(6)(가)의 ‘-잡’은 선어말어미이고 (6)(가)의 ‘-지 않’은 각각 부정 부사형어미, 부정 보조동사로 각각 다르게 나뉘어지는가?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올바른 비교인지는 의문이나, (6)(나)의 ‘떠나셨다’의 ‘-셨’을 참고로 살펴보기로 하자. ‘-셨’은 선어말어미 ‘-사’, ‘-았’의 융합형일 것이다. 소략하지만 ‘-셨다 -셨고, -셨니, -셨더라’ 등등에서 ‘-셨’ 그 자체가 선어말어미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셨’ 그 자체를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선어말어미로 규정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잡잡’이 단순한 선어말어미라는 문법범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어차피 통사적 성분으로서의 융합형 ‘-잡잡’이 ‘진전된 융합형 또는 어휘화 성분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단어(괜잡다, 편잡다, 점잡다)에서의 ‘-잡잡’은 파생접미사로 재구조화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좀더 구체적인 논의는 약하기로 한다

#### IV. 융합형 ‘-잡다/-잡다’와 단어 형성

융합형 ‘-잡다-잡다’가 (5)의 (가)와 (나)처럼 구성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국 ‘-지 아니하다’의 융합형 ‘-지 않다’가 선행의 어떤 동사 어간 또는 어근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현대국어에서 음성적으로 다르게 실현되는 ‘-잡다-잡다’의 이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잡다’에는 적어도 통사적 절차에 따라 융합된 어형이라 하더라도 결코 어간 또는 어근 형태소의 잔재(또는 흔적)가 전혀 없는 데 반하여, ‘-잡다’ 어형에는 선행 어간 형태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사 접미사 ‘-하’에 따라 파생된 동사 어간 형태소(예: ‘편하, 마땅하’ 등)의 잔재가 유기음 ‘ㄷ’의 일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점잡다, 같잡다’의 어간 ‘점-(점-)’이나 ‘같-’에서는 ‘ㅎ’의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데 반하여 ‘편잡다, 마땅잡다’의 어간 ‘편잡, 마땅잡’에서 또다른 어간 ‘편하, 마땅하’를 추정할 수 있고, 이 어간 ‘편하, 마땅하’에 ‘-잡다’가 통합되었을 때 이 어간에서 ‘나’가 탈락됨으로써 ‘편하, 마땅하’이 ‘-잡다’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유기음화한 것이 ‘잡다’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어의 자연언어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분명하다. 다음 (7), (8)에 그 예들을 제시한다.

(7) ‘-잡다’ 류의 동사구

(가) 점잡다, 같잡다, 적잡다

(나) 예쁘잡다, 굵잡다, 축잡다, 덩잡다, 좁잡다, 크잡다, 낮잡다, 깊잡다 …

등등

가잡다, 오잡다, 먹잡다, 버리잡다, 좇잡다, 울잡다, 웃잡다, 열리잡다, 단  
히잡다 ... 등등

(8) ‘-잡다 류의 동사구

(가) 괜잡다(괜찮다), 귀잡다(기잡다, 구잡다), 술잡다(<수월잡다), 편잡다  
(>편찮다), 하잡다

(나) 마땅잡다, 수월잡다, 개운잡다, 시원잡다, 고요잡다, 서늘잡다, 편안잡  
다, 활발잡다, 등등 (\*공부잡다(공부하-), ?도착잡다(도착하-), \*일잡다(일  
하-), ?노력잡다(노력하-), ?공격잡다(공격하-), 등등)

위의 (7), (8)에서 ‘-잡다/잡다 류의 동사구를 각각 (가)와 (나)로 구분해 놓은  
것은 (가)류는 이미 한 단어 곧, 새 단어로 굳어진 것이고 (나)류는 아직 통사적  
통합에 의한 부정 동사구로 남아있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7)과 (8)의 (나)에서 어떤 제약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8)  
(나)에서처럼 의미적으로 이상한 몇몇 개를 제외하면 ‘-잡다/잡다 의 통합은 거의  
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특히 (7)(나)의 예들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잡다’가 통합될 수 있는 선행 어간에는 전혀 제약이 없는 듯하  
다.

실제로 문장 구성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의 비문법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문장의 적격성에는 결정적인 하자가 된다. 그러나 어휘, 곧 단어의 적격성에는  
그 규칙이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빈도수가 좀 낮거나 또 새로운  
단어를 형성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나 규칙성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데도 매우 어  
색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다. 아마도 (8)(나)의 ‘마땅잡다, 수월잡다 등등이 매우  
자연스러운 단어로 수용되는 데 반하여 ‘공부하지 않는다’의 융합형 ‘\*/? 공부잡다,  
‘일하지 않는다’의 그것인 ‘\*/? 일잡다 등이 불가능하거나 어색한 동사구로 인식되  
는 것이 그런 예들일 것이다. (8)(나)의 괄호 속에 의문부호로 표시된 동사구 ‘? 도  
착잡다, ?노력잡다’ 등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8)(가)의 ‘괜잡다 귀잡다 류의 그것  
과, 그 성립을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부잡다, \*/?일잡다’ 류의 중간단계에  
있는 동사구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앞에서 (7), (8)의 (가)류는 한 단어(곧 파생어)이고 (나)류는 통사적 통합에 따라 실현된 동사구임을 지적한 바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음상(phonetic shape)이 어떤 차이점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더군다나 ‘-잖다-잖다’의 구성 내용이 모두 부정 부사형어미 ‘-지’, 부정 부사 ‘아니’, 그리고 동사 접미사 ‘-하다’의 융합형임이 분명한데 왜 (7), (8)의 (가)류의 예는 파생에 따른 한 단어이고 (나)류는 ‘-지 아니하다’의 융합형이 동사 어간에 통합된 부정 동사구라는 말인가? 이것은 대체로 다음에 논의할 파생어의 의미에서 다루어지겠지만 독립(어휘)형태소의 의미와 의존(문법)형태소의 의미(기능)가 기본적인 의미연결에 따른 의미의 결합인가, 아니면 그런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이미 그 의미에서 벗어나 또 다른 의미를 이루는가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자면 (7)(가)의 ‘점잖다’는 단순히 ‘줍다(중세국어 ‘점다’)의 부정의미 ‘줍지 아니하다’의 성분이 통합되어 나타난 동사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만은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의 의미는 ‘줍다’의 부정적 의미보다는 제3의 의미 곧 “① 몸가짐이 묵중하고 음전하다 ② 품격이 속되지 않고 고상하다. ③ 됨됨이가 품위 있고 의젓하다” 등을 나타내는 독립된 단어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8)(가)의 ‘괜찮다(괜찮다)’도 ‘괜-’의 어원이 ‘공연(空然)’ 또는 ‘관계’, 그 외의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점잖다’와 동일한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7), (8)의 (가)에 비하여 (7), (8)의 (나)류의 동사구들은 모두 주동사의 의미를 부정하는 구성으로 되어있고 그 의미도 그대로 주동사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7), (8)의 (가)류를 파생어로 상정하고 (7), (8)의 (나)류는 부정의 통사적 융합 동사구로 분류하고자 한다(사전5)에 파생어로 등재된 ‘-잖다-잖다’ 파생어를 다음 (9)에 제시한다.

#### (9)(가) ‘-잖다’ 파생어 목록

5) 이 파생어 목록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과 옛센스한영사전(민중서랍)에 표제어로 등재된 것을 김병선 교수가 문자 검색으로 정리하여 준 것이다. 그 가운데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만을 제시하였다. 괄호 안의 것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김병선 교수께 감사한다.

- |                |          |          |                |
|----------------|----------|----------|----------------|
| 1. 같잖다         | 2. 개잖다   | 3. 그닥잖다  | 4. 그렇잖다        |
| 5. 깔밋잖다        | 6. 꼴같잖다  | 7. 꼴답잖다  | 8. 남부럽잖다       |
| 9. 달갑잖다        | 10. 되잖다  | 11. 맞갖잖다 | 12. 시답잖다       |
| 13. 식잖다        | 14. 씨식잖다 | 15. 씨잖다  | 16. 야짓잖다(야짓잖다) |
| 17. 어쭙잖다(어쭙잖다) | 18. 오죽잖다 | 19. 올곧잖다 | 20. 의짓잖다       |
| 21. 잠잖다        | 22. 적잖다  | 23. 점잖다  | 24. 하잖다        |
| 25. 한갓대잖다      |          |          |                |

(나) ‘-잖다’ 파생어 목록

- |                |               |                |               |
|----------------|---------------|----------------|---------------|
| 1. 가당잖다        | 2. 괜잖다(겐잖다)   | 3. 괴이잖다        | 4. 괴잖다        |
| 5. 구잖다         | 6. 귀잖다(기잖다)   | 7. 그렇잖다        | 8. 당잖다        |
| 9. 대단잖다        | 10. 마땅잖다      | 11. 마뜩잖다       | 12. 만만잖다      |
| 13. 모뚱잖다       | 14. 변변잖다      | 15. 별잖다        | 16. 선잖다(시원잖다) |
| 17. 수월잖다(솔잖다)  | 18. 시원잖다(선잖다) | 19. 심심잖다       | 20. 아슴잖다      |
| 21. 안심잖다       | 22. 엔간잖다      | 23. 여의잖다(여이잖다) | 24. 우연잖다      |
| 25. 웬간잖다(엔간잖다) | 26. 조러잖다      | 27. 조런잖다       | 28. 째잖다       |
| 29. 째잖다        | 30. 째잖다       | 31. 칠칠잖다       | 32. 편잖다(괜잖다)  |
| 33. 편편잖다(편편잖다) | 34. 하잖다       |                |               |

V. 융합형 ‘-잖다/-잖다’ 어휘의 의미

설명 편의 위하여 (5)의 (가), (나)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보기로 한다.

(5) (가) ‘-잖다’의 형성과정

동사 어간 ‘X-’+부정 부사형어미 ‘-지’+부정 부사 ‘아니’+동사 접미사 ‘-하’

예: ‘같-’+‘-지’+‘아니’+‘-하다’ (같지아니하다>같지 않다>같잖다)

(나) ‘-잖다’의 형성과정

접미사 ‘-하’의 파생 동사 어간 ‘X-’+부정 부사형어미 ‘-지’+부정 부사+ ‘아니’+동사 접미사 ‘-하’

예: ‘편하-’+‘-지’+‘아니’+‘-하다 (편하지아니하다> 편하지 않다> 편치않다>편찮다)

(5)(가) 및 (5)(나)와 같은 형식으로 형성된 동사구 ‘같잖다’와 ‘편찮다’는 아직 정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파생어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7), (8)의 (나)로 제시된 ‘예쁘잖다, 곱잖다’, ‘마땅찮다, 수월찮다’ 등등은 비록 그 구성 성분이나, 이들이 융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음상(phonetic shape)은 완전히 (7), (8)의 (가)와 같으나 그 의미는 다르다

그 구성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나 그 의미가 서로 다른 ‘-잖다-잖다’ 류의 예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9)(가)의 ‘점잖다’와 (9)(나)의 ‘괜찮다’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두 단어의 구조를 다음 (10)으로 제시한다

- (10) (가)점잖다 : 점(黠)+-자+아니-하다(잡(黠)지아니하다 > 점지 않다 > 점잖다)
- (나)괜찮다 : 공연(空然)하/관계(關係)하+-자+아니-하다(공연하/관계하지아니하다 > 공연하/관계하지 않다 > 공연/관계치않다 > 괜찮다)

(10)(가)의 ‘점잖다’는 그 어근 또는 어간이라 할 수 있는 ‘점’이 역사적으로 후기 중세국어의 ‘점다’의 어간 ‘점-’(예, 羅雲이 저머 노르슬 즐겨(석보상절 6, 10b), 나히 저무매(年少)(두시연해 초간본 7, 31b) 등등)과 현대국어 ‘젊다’의 어간 ‘젊’에 소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런데 어간 ‘점(黠)-’에 그 기원을 들 수 있다고 해석되는 파생어 ‘점잖다’의 어간 ‘점-’은 원래의 ‘年少’의 의미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年少’의 의미는 소실된 것 같다. 비록 사전적 의미이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한 “① 몸가짐이 묵중하고 음전하다, ② 품격이 속되지 않고 고상하다, ③ 됨됨이가 품위있고 의젓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기원적으로 (10)(가)와 같은 ‘잡(黠)-(年少)’의 부정 성분의 구성으로 된 동사구에

6) 대체로 ‘점잖다’의 ‘점-’에 대한 사전에서의 어원은 ‘점’, ‘젊’에 소급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말어원사전(김민수 편, 최호철·김무림 편찬, 태학사)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등 참조

서 그 기원적 의미는 소실되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젊지 않은 인물’에게서 파생어 ‘점잖다’의 ①, ②, ③과 같은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현대국어 ‘점잖다’의 의미는 ‘젊지 아니하다’, 곧 ‘不年少’의 의미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10)(나)의 ‘괜찮다’는 어떠한가? 파생어 어간 ‘괜’에 대한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대체로 한자어 ‘空然’ 및 ‘關係’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괜찮다’의 구조를 (10)(나)처럼 상정할 때 우리는 파생어 ‘괜찮다’의 의미를 “공연하지 아니하다(>공연하지 않다), 관계하지 아니하다(>관계하지 않다)”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의미는 실제로 현대국어의 “① 그만하면 쓸만하다, 별로 나쁘지 않다(예문, 모양이 괜찮다), ② 상관없다, 무방하다(예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등등의 기본적인 의미와 구조를 (10)(나)처럼 상정한다고 할 때, 그 기본의미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파생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10)(가)와 (10)(나)의 구조와 그 기본 의미로부터의 의미의 변화를 통해서 외현적으로는 동일한 음상을 가지나 실제로는 통사적 성분의 통합을 통한 융합형으로서의 동사구조와 그렇지 않고 그 성분들이 기본적인 기능이나 의미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그 동사구가 완전히 파생어로 바뀌는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대체로 다음 (11)로 정리한다.

(11) ‘-잖다/찮다’ 류의 동사구 형성과 의미

(가) 동사어간 ‘X-’+부정 부사형어미 ‘-자’+부정 부사 ‘아니’+동사 접미사 ‘-하-’

(나) ‘X잖다 / X찮다’의 의미는 ‘X-’의 기본 의미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한다.

(다) 새 동사 ‘X잖다 / X찮다’의 형성

실제로 (9)(가)에 제시한 단어 “2. 개잖다, 3. 그닥잖다, 5. 깔밧잖다, 11. 맞갖잖다, 13. 식잖다, 14. 씨식잖다, 15. 썩잖다, 16. 야젓잖다, 17. 어쭙잖다, 24. 하잖

다, 25. 한갓잡다” 등과 (9)(나)의 “5. 구잡다, 11. 마뜩잡다, 20. 아슴잡다, 22. 엔간잡다, 28. 째질잡다, 31. 칠칠잡다, 34. 하잡다” 등의 어간 또는 어근들은 현재 그 기본의미를 상실하여 그 어원을 밝히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제시한 새 단어의 어간 또는 어근들은 현재 우리가 그 어원을 밝히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11)(가)의 형식에 따라 통사적 통합관계를 갖게 되고, 거기서 다시 어간 또는 어근의 기본 의미를 잃게 되는 (11)(나)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전한 새 단어인 (11)(다)의 종착점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9)(가)의 “2. 개잡다, 3. 그닥잡다”루와 (8)(나)의 “5. 구잡다, 11. 마뜩잡다, 20. 아슴잡다” 류의 어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9)(가)의 “2. 개잡다, 21. 점잡다, (9)(나)의 ‘괜잡다, 32. 편잡다’ 처럼 기원적으로 그 어간 또는 어원의 의미를 완전히 잃고 새 동사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과 다르게 그 기원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새 단어의 “4. 그렇잡다, 6. 끝갓잡다, 8. 남부럽잡다, 9. 달갓잡다, 10. 되잡다, 12. 시답잡다, 17. 어쭙잡다, 18. 오죽잡다, 19. 울곤잡다, 20. 의젓잡다, 22. 적잡다” 등이 그것이고 (9)(나)의 “1. 가당잡다, 3. 괴이잡다, 8. 당잡다, 9. 대단잡다, 10. 마땅잡다”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잡다-잡다’류 동사로 분류될 수 있는 예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점잡다, 하잡다’처럼 그 어간의 기원적인 의미를 거의 완전히 상실하고 새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위에서 나열한 예들처럼 기원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예들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비록 기원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단어의 의미 영역에서 기원적인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곧 어떤 어간이나 어근에 통합형 ‘-잡다-잡다’가 통합되어 새로운 동사를 이루게 될 때, 그 어간이나 어근이 순수국어어야 아니면 한자어어나에 따라 그 기원적인 의미의 유지나 그 음상의 변화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어의 변화에서 이

7) 형용사 ‘하잡다’의 어근 ‘하-’의 어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그것이 중세국어 ‘하다(多, 大)’의 어간 ‘하-’임을 지적한 것은 김목한 선생이다. 필자의 미진한 생각에 김목한 선생의 지적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둔다.

것은 실제로 음상만을 기록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순수국어와 비록 한글로 기록했다 하더라도 한자어 국어가 각각 다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결국, 부정 동사구 유형으로서의 ‘-잖다-찮다’ 류의 예(예쁘잖다, 곱잖다, 노력잖다, 활발찮다)와 융합형 동사의 예(점잖다, 갑잖다, 괜찮다, 하찮다) 등이 그 음상이나 구성요소가 완전히 다른 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새로운 동사로, 또다른 것은 부정 동사구로 분류되는 것은 그 의미의 변화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점잖다’처럼 그 어간 ‘점’의 기원적인 의미 ‘年少’의 뜻을 완전히 잃고 새 단어로서의 제 3의 의미만을 갖거나 ‘편찮다’처럼 그 기원적 어간 ‘편하’의 의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나 그 기원적 의미는 극히 약하고 또다른 제 3의 의미가 중심을 이룰 때, 그런 유형의 ‘-잖다-찮다’ 류의 동사구는 독립된 한 단어라는 것이다.

## VI. 결론

통사적 결합에 따라 일부 문성분(sentence-formation)의 어구가 그 기원적인 의미나 기능을 잃고 단일 품사의 단어와 같은 의미나 기능을 갖게 되는 예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현대국어의 ‘함께’이다. 이것은 ‘-을 의미하는 ‘함’과 ‘시간’을 뜻하는 명사 ‘빚’가 결합하고 이 명사구에 다시 처격조사 ‘의’가 통합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함빚의’에서 ‘함짜’로 변했다가 다시 ‘함께’로 변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서 ‘X지 아니하다’에서 ‘X지않다’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X잖다’로 융합되는 예와 ‘X하지 아니하다’에서 ‘X치 않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X찮다’로 융합되는 예가 있는데, 이 ‘X잖다’와 ‘X찮다’의 구성형식을 제시하고 변항 ‘X’ 대신에 구체적인 어간의 예를 보이면 다음 (12)의 (가), (나)와 같다

### (12) ‘X잖다/X찮다’ 부정 동사구의 형성 내용

(가) 동사 어간 ‘X-’+부정 부사형어미 ‘-자+ 부정 부사’ ‘아니+ 동사 접미사 ‘-하-’

예: ‘같-’+‘-지’+‘아니’+‘-하다’ > 같지아니하다 > 같지 않다 > \*같잖다



> 같잖다

(나) 접미사 ‘-하-’의 파생 동사 어간 ‘X-’+부정 부사형어미 ‘-지-’+부정 부사+‘아니’+동사 접미사 ‘-하-’

예: ‘편하-’+‘-지-’+‘아니’+‘-하다’ > 편하지아니하다 > 편하지 않다 > 편치않다 > \*편잖다 > 편잖다

(12)의 (가), (나)에서 우리는 일단 ‘-잖다-잖다’는 융합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9)에서 예시한 새로운 동사를 형성하고 있다 (9)의 예 가운데서 ‘점잖다, 괜잖다, 하잖다’ 등등은 이것과 똑같은 구성성분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음성 실현을 보이고 있는 ‘덥잖다, 춥잖다, 편안잖다, 출발잖다’ 등등과 의미면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곧 전자는 그 어간 또는 어근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완전히 소실되었거나 있어도 그 비중이 매우 낮아져서 실제로는 새로운 단어의 또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반하여, 후자는 그 어간 또는 어근의 기원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오직 부정 동사구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똑같은 내적 구조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잖다-잖다’ 류의 동사구는 그 어간(어근)의 기본 의미가 소멸되거나 변하여 또다른 의미를 갖게 되면 새로운 동사가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 어간(어근)의 기본 의미가 부정되는 통사구 통합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부정 동사구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파생동사로 분류되어 사전에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는 ‘-잖다-잖다’ 류의 동사도 이를 새롭게 검토하여 파생동사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주장에는 ‘-잖/잖’을 파생동사 접미사로 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전제되어 있다

## 참고논저

- 고영진,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서울: 국학자료원, 1997.
- 김철남, 『우리말 어휘소 되기』, 서울: 한국문화사, 1997.
- 손세모들, 「‘-잖’의 의미, 전제, 합축」, 『국어학』 33, 국어학회, 1999, 214쪽.
- 이기문, 『국어음운사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80.
- 이기문, 『국어사개설(신정판)』, 서울: 태학사, 1998.
-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서울: 태학사, 1998.
- 이태영,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88.

## 주제어

융합형, 부정 부사형, 신어, 단어형성, 통합형